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윤 인 경(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정과 교육은 학교 교육이 실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를 같이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각 나라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의 가정과 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과목의 명칭, 교육내용, 시간 배당, 교육 대상 등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오늘 세미나의 목적에 따라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3개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가정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은 1946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1954년 처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제정되었으며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가정과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정, 가사 등의 과목명으로 주로 이수하였다. 학교급별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1955년에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기 때는 과거 직업, 요리·재봉, 공작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과로 통합하였고, 4~6학년까지 각 학년 주당 80분~130분씩 이수하였다. 지도 내용은 재배, 사육, 공작, 기계 기구 다루기, 조리, 재봉 뜨개, 세탁 염색, 위생보건 등 10개 영역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기능부분 내용은 남녀 구분하여 이수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4~6학년에서 주당 2~3.5시간을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하였다. 지도 내용은 재배, 사육, 일, 기구제작 생활향상, 관리교육, 가정생활 등 7개 영역이었고,

〈표 1〉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배당 시간	내용 영역	특징과 강조점
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4호) 1955. 8. 1	◦ 4, 5학년 : 각 80~110분 ◦ 6학년 : 90~130분	◦ 미화 작업 ◦ 재배 ◦ 사육 ◦ 공작 ◦ 기계 기구 다루기 ◦ 조리 ◦ 재봉 뜨개 ◦ 세탁 염색 ◦ 위생 보건 ◦ 문서 정리	◦ 종래의 직업, 요리·재봉, 공작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과로 통합 ◦ 10개 영역의 같은 내용을 나선형 조직 ◦ 내용이 광범위하고 과다하게 제시 ◦ 내용을 일감, 기능, 이해 제시 ◦ 기능 부분 내용은 남녀 구분 이수 ◦ 6학년 교과서만 남녀 구분 편찬
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19호) 1963. 2. 15	◦ 4학년 : 2~2.5시간 ◦ 5학년 : 2.5~3시간 ◦ 6학년 : 2.5~3.5시간	◦ 재배 ◦ 사육 ◦ 일 ◦ 기구 제작 ◦ 생활 향상 ◦ 관리 교육 ◦ 가정 생활	◦ 7개 영역의 같은 내용을 나선형 조직 ◦ 남녀 공통 이수 ◦ 생산성과 유용성 강조로 '재배' 및 '사육' 영역 강화 ◦ '가정 생활' 영역은 전 내용에 분산 ◦ 의·식·주생활에 관한 내용을 '생활 향상'에 포함 ◦ 생활 경험을 통한 교육 강조
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10호) 1973. 2. 14	◦ 4, 5학년 : 각 2시간 ◦ 6학년 : 3시간	◦ 재배 ◦ 사육 ◦ 실계공작 ◦ 기계·기구 조작 ◦ 경영 계산 ◦ 식품 조리 ◦ 재봉 세탁 ◦ 생활 계획 ◦ 주택 및 환경 위생	◦ 9개 영역의 같은 내용을 나선형 조직 ◦ '가정 생활'과 '공작' 영역 강화 ◦ 창의와 능률 및 실질을 고려, 성실하게 협동하는 태도 육성에 역점을 둠 ◦ 남녀 공통 이수 정착
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 4, 5, 6학년 : 각 2시간	◦ 생활 계획과 관리 ◦ 생활 기능 ◦ 소비와 절약 ◦ 일과 직업의 이해	◦ 4개 영역의 내용을 나선형 조직 ◦ 실용성 중시 ◦ 기본 기능 습득 강조 ◦ 가정 영역 강화 ◦ 제발적 경험 확대 ◦ 재배·사육 내용 축소 ◦ 근점 절약의 실천, 소비자 교육 중시 ◦ '일과 직업의 이해' 영역 신설로 진로 교육 계기 마련
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	◦ 4, 5, 6학년 : 각 2시간	◦ 생활 계획과 관리 ◦ 생활 기능 ◦ 소비와 절약 ◦ 일과 직업의 이해	◦ 4개 영역의 조직을 유지하고 하위 영역 수준에서 내용을 보완 수정 ◦ 기초적 생활 기능의 정착, 근로 존중, 근점 절약의 실천에 강조점을 둠 ◦ 보조 교과서 '실습의 길잡이' 편찬 ◦ 컴퓨터 교육의 도입
6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1992-16호) 1992. 9. 30	◦ 3, 4, 5, 6학년: 각 1시간	◦ 다루기 ◦ 만들기 ◦ 가꾸기 및 기르기 ◦ 전사하기	◦ 이수 학년을 3학년부터 확대 ◦ 이수 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 ◦ 행동 중심 4개 영역의 같은 내용을 나선형 조직 ◦ 내용을 생활에 유용하며, 쉽고 기본적인 노작의 체험으로 한정 ◦ 실천 중심의 내용 체계 구축 ◦ '기르기' 영역 운영의 재량권 부여 ◦ 교과 내용 축소 ◦ 단계적 평가 적용

특히, 의식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생활향상'에 포함하여 생활경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4, 5학년은 2시간씩, 6학년은 3시간씩 실시하였다. 지도 내용은 재배, 사육, 경영계산, 식품조리, 주택 및 환경위생 등 9개 영역으로 '가정생활'과 '공작' 영역을 강화하였다.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4~6학년에서 2시간씩을 이수하였고,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재배·사육 내용을 축소하였으며 소비자 교육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보조 교과서 '실습의 길잡이'가 편찬되었고, 컴퓨터 교육이 도입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기 때는 이수학년을 3~6학년으로 확대하여 각 1시간씩 배당하였고,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전사하기 등 4개 영역의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축소하면서 생활에 유용하며, 쉽고 기본적인 노작의 체험으로 한정하였다.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의 변천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중학교

중학교의 경우 가사, 재봉, 수예 등의 과목으로 시작된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교육과정기인 1955년 '가정생활'이란 과목으로 5시간씩 배당하여 생활경험과 노작교육을 중시하여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주로 조리, 보건위생, 식품가공, 수기공작, 제도 등이었다. 2차 때는 '가정과정'이란 과목으로 1, 2학년은 4~6시간, 3학년은 3~12시간 이수하도록 하여 그 시간 배당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은 의생활, 식생활, 수예, 주생활, 아동보육 및 가족관계, 가정관리 등이었다. 1969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서는 기술(여자) 과목을 추가하여 산업사회와 가정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였고, 시간배당은 1학년은 4~5시간, 2, 3학년은 3시간씩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가정과목은 각 학년당 3시간씩 실시되었고, 교육내용은 가정기계와 전기 부분의 내용이 첨가되었으며, 조리·재봉·수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기는 제3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필수과목으로 '가정', 선택과목으로 '가사'가 있었는데, 가정과목은 1, 2학년에서 3~6시간, 가사과목은 3학년에서 5~7시간이 이수되었다. 가정 과목의 지도 내용으로는 가족생활, 자원활용, 진로를 강조하였고, 청소년의 식사, 청소년의 의복 등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어 실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 때는 제4차 때와 마찬가지로 1, 2학년에서 가정, 3학년에서 가사과목이 이수되었고, 처음으로 남녀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과목이 신설되어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 내용은 가족생활의 중요성과 진로탐색, 가

〈표 2〉 중학교 가정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교과명	과목명	강조점 및 내용	학년별 시간(단위)배당		
				1	2	3
교수요목기	실업	가사, 재봉, 수예				
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1955. 8. 1.	실업· 가정	가정생활 가정생활	생활경험과 노작교육 (조리, 보건위생, 어, 식품가공, 수기공작, 재 도 등)	5 (1-7)	5 (1-7)	5 (1-7)
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제120호) 1963. 2. 15.	실업· 가정	가정과정	학습경험을 통한 가정생활의 이해와 협동, 봉사하려는 태도 의생활, 식생활, 수예, 주생활, 아동보육 및 가족관계, 가정관리	4-5	4-6	3-12
교육과정 부분개정 (문교부령 제251호) 1969. 9. 4.	실업· 가정	기술(여) (가정)	산업사회와 가정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 술의 습득 의생활, 식생활, 가정원예, 아동보육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보건, 가정관리, 수예)	4-5	3 (2-3)	3 (2-9)
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1973. 8. 31.	실업· 가정	가정 (가사)	가정생활과 가사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 식과 기능 식생활, 의생활, 가정기계와 전기, 가정관리, 가정원예, 주택, 수공예, 육아, 보건 (조리, 재봉, 수예)	3	3 (3-4)	3 (3-4)
4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제442호) 1981. 12. 31.	실업· 가정	가정 (가사)	가족생활, 자원활용, 진로를 강조 가족생활, 가정생활과 자원활용, 청소년의 식 사, 청소년의 의복, 가정의 생활공간, 가정과 직업 (조리, 재봉, 수예)	3	4-6	(5-7)
5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 87-7호) 1987. 3. 31.	실업· 가정	가정 기술· 가정 (가사)	가족생활의 중요성과 진로 탐색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 우리의 식생활, 청소 년기의 의생활, 가정의 생활환경, 직업과 나 의 진로 (식생활, 의생활, 수예)	3	4-6	(4-6)
6차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2-11호) 1992. 10. 30.		가정	남녀학생 모두 이수 가사과목과 통합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 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2	1	1

주) 과목명의 () 안은 선택과목임

죽원의 성장과 발달, 우리의 식생활, 청소년기의 의생활, 가정의 생활환경, 직업과 나의 진로 등이었으며, 시간배당은 1학년은 3시간, 2, 3학년은 4~6시간씩이었다.

1992년에 고시되어, 1995년 실시된 제6차 교육과정기 때는 가사와 가정 과목을 통합하여 '가정'으로 하면서 남녀학생 모두 이수하는 필수과목으로 편제되었다. 시간배당은 축소되어 각 학년에서 2, 1, 1 시간 이수하였다. 지도 내용은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 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은 다음 <표 2>와 같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교육과정기에 '가정과정' 과목으로 피복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미용, 직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일반', '일반관리' 과목으로 실시하였고, 시간배당이 단위제로 변경되었으며, 1969년 부분개정으로 '기술(여자용)'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과목으로, 가정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단위 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종전의 '일반관리' 과목을 '산업 일반' 과목으로 교체하여 이수하게 하였다. 특히, 산업 및 기술의 강조,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 우리 나라 산업의 발전과 전망, 현대 산업사회와 직업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실시되었다.

1974년의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가정' 과목이 '가정'과 '가사'로 분리되면서 '가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고, 선택과목으로 '가사'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편제는 제4차 제5차, 제6차 교육과정까지 유지되었다. 가정과목의 지도내용은 가정경영, 식·의·주생활 내용과 가정경제, 가족관계, 육아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생활의 과학화와 현대여성으로서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가사과목의 내용으로는 기존의 가사, 재봉, 수예 등의 내용에 조리, 편물 등의 내용이 첨가되었으며 이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가정과목 지도 내용은 식생활과 의생활의 기능적인 실습 내용은 주로 '가사' 과목에서 다루게 하여 '가정'과 '가사'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중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지도내용은 '가족과 가정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관계', '아동 양육'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가정' 과목은 시간 배당이 8단위로 제4차 교육과정에 비해 축소되었다. 지도 내용은 가족관련 내용과 가정관리, 소비생활, 식·의·주 관련 내용, 직업과 진로 등 15개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내용이다.

〈표 3〉 고등학교 가정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교과명	과목명	강조점 및 내용	학 년 별 시간(단위)배당		
				1	2	3
교수요목기	실업	가사, 재봉, 수예				
제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6호) 1955. 8. 1.	실업·가정	가정과정 가정과정	개인생활의 향상과 개인 및 가족일원으로서의 생활 피복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미용, 직업 등	3 0-12	3 0-22	3 0-2 2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제121호) 1963. 2. 15.	가정	가정일반 일반관리	가정과 사회, 국가와의 관계와 일에 대한 책임의식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동보육, 가정보건, 가족 관계와 예절, 가사실업, 가정관리		14 4	
교육과정 부분개정 (문교부령제251호) 1969. 9. 14.	실업·가정	산업일반 기술(여) 가정	산업 및 기술의 강조,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 우 리 나라 산업의 발전과 전망, 현대 산업사회와 직업 설계제도, 전열기구와 전동기 기구의 점접 및 수 리, 제작실습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내용 변화 없음)			4 4 (10)
제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제350호) 1974. 12. 31.	실업·가정	가정 (가사)	생활의 과학화와 현대여성으로서 자질 함양 가정경영,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경제, 가족 관계, 육아 (조리, 한재, 양재, 편물, 자수)		8-10 18 (8-10)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 12. 31.	실업·가정	가정 (가사)	가족생활, 식, 의, 주,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 능 습득 가족과 가정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 계, 아동양육 (조리,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8-10 (8-10)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 3. 31.	실업·가정	가정 (가사)	·가족 및 일상생활과 가정과 관련 직업의 이해 강조 ·가족의 본질, 가족발달과 가족관계, 가정관리, 가정경제와 소비생활, 인체와 영양, 식품과 조리, 식생활, 관리, 인체와 의복, 의복 디자인과 구성, 의생활 관리, 주택설계 및 시공, 주택의 선택 및 관리, 아동발달, 출산과 아동양호, 직업과 진로 (조리의 원리, 조리의 실제,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가사와 관련 산업과 직업)			8 (8)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2-19호) 1992. 10. 30.	실업·가정	가정 (가사)	가정, 가사 모두 과정별 선택과목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 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한국음식, 외국음식,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진로와 직업)			8 (6)

주) 과목명의 () 안은 선택과목임.

주) 제1차 교육과정기는 시간 배당이며, 제2차 교육과정기 이후는 단위 배정임.

제6차 교육과정의 가정과목 지도 내용은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체험을 통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II.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

한국은 현재 초등학교 전학년(1~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7~8학년),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9학년), 고등학교 2, 3학년(11~12학년)은 200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개정·고시된 것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즉, 고도 산업화, 정보사회화, 세계화 등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개정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개정되었다.

또한, 1~10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으로, 11~12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기간으로 편제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5~6학년) '실과', 중학교와 고등학교(7~10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11~12학년) '가정과학' 과목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 실 과

실과는 초등학교 5~6학년에서 2시간씩 배당되어, 남녀 모두가 이수하는 교과로서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술·가정 교과와 연계되어 있다. 지도내용은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집안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흥미, 생활에의 유용성, 실용성, 적합성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실과는 실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생활의 적응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으로서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지도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에서도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이를 일상생활에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2. 기술·가정

기술·가정은 제6차 교육과정의 기술·산업 교과와 가정교과를 통합한 것으로 7~10

학년까지 이수하며, 시간 배당은 각 학년에서 2, 3, 3, 3시간 배당되었다. 기술·가정은 초등학교의 실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남녀 학생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필수 과목이다. 지도내용은 종전의 실과 4개 영역, 기술·산업 3개 영역, 가정 5개 영역을 통합하여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와 3개 영역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도 영역의 연계성, 통합성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13개의 기술·산업 중영역을 10개로, 10개의 가정 중영역을 8개로 축소 조절하였으며, 기술·산업의 내용 중 인간과 기술, 산업과 생활을 미래의 기술, 산업과 진로로, 주택 건축의 기초는 건설 기술의 기초로 수정하였으며 자원과 환경, 주택 관련 내용을 가정과와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가정과의 내용에서는 3개 학년에서 이수하던 식생활은 2개 학년에서, 2개 학년에서 이수하던 의생활과 가정 자원과 소비 영역은 1개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축소 조절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내용은 5~8학년에서 연속하여 다루도록 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였다. 기술·가정 7~9학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학년에서는 남녀 학생이 장래 가정과 직업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고, 11~12학년의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3. 가정과학

가정과학은 선택과목으로 제6차 때의 가정과 가사를 통합한 과목이다. 시간배당은 6단위로 초등학교의 실과, 7~10학년의 기술·가정 교과를 바탕으로 남녀 구분 없이 11~12학년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가정경영의 차원에서는 가족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생활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준다. 또한 지도 내용을 학생과 학교,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 분야와 관련되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지도 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의 '가정', '가사' 과목의 11개 영역을 가정과학의 성격에 따라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5개 영역으로 적정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가사과의 한국 음식, 서양음식, 한국 의복, 서양 의복, 수편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통합, 축소하였으며, 지도 요소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다루도록 하였고 각 영역에서 관련된 직업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지도 탐색과 준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5개 지도 영역을 고르게 이수시킬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관심 있는 영역을 2개 이상 선택하여 집중 이수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초등실과와 중등기술점 가정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의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내용 체계

영역	학년	5학년	6학년
가정과 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생활의 중요성 · 가정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 생활 계획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하는 일 · 직업의 세계와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영양과 식품 · 조리 기구 다루기 · 간단한 조리 하기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 자수 · 뜨개질 · 손바느질 ○ 전기 기구 다루기와 전자 키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기구 다루기 · 전자 키트 만들기 ○ 꽃과 채소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가꾸기 · 채소가꾸기 ○ 컴퓨터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의 구성 · 자판다루기와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음식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고르기와 다루기 ·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 재봉틀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박기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 목제품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공구다루기 · 간단한 목제 용품 만들기 ○ 동물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 동물, 금붕어 기르기 · 경제 동물 기르기 ○ 컴퓨터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로 그림그리기 · 컴퓨터 통신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 계획 세우기와 용돈 기입장 적기 · 금융 기관 이용하기 ○ 생활 환경 정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 청소와 쓰레기 처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자원의 이용과 절약 · 생활 용품 재활용하기 ○ 집안 환경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환경 꾸미기 · 나무심기와 손질하기

<계속>

영역 \ 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의 이해 · 청소년의 특성 · 성과 이성 교제 · 나와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진로 · 산업의 이해 ·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 산업 재해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생활설계 · 가정 생활 문화의 변화 · 가족 생활 주기와 생활 설계 · 결혼과 육아
생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 청소년의 영양 · 청소년의 식사 · 조리의 기초와 실제 ○ 미래의 기술 · 기술의 발달과 미래 · 생명 기술과 재배 ○ 제도의 기초 ·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 · 도면읽기와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 옷만들기와 재활용 · 옷의 손질과 보관 ○ 기계의 이해 · 기계 요소 · 운동 물체 만들기 ○ 재료의 이용 · 재료의 특성 · 제품의 구상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식사 관리 · 식단과 식품의 선택 · 식사 준비와 평가 · 식사 예절 ○ 전기 전자 기술 · 전기 회로와 조명 · 가전 기기의 점검 · 전자 제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생활의 실제 · 초대와 행사의 계획과 준비 ·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 에너지와 수송 기술 · 에너지원의 이용 · 동력의 발생과 이용 · 자동차의 관리 ○ 건설 기술의 기초 · 건설 구조물의 시공 원리 · 건설 구조물 모형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와 정보 처리 ·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 · 정보의 생산, 저장과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와 생활 · 소프트웨어의 활용 · 인터넷의 활용 		
생활 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관리와 환경 · 자원의 활용과 환경 · 청소년의 일과 시간 · 청소년과 소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생활과 주거 · 생활 공간의 활용 · 실내 환경과 설비 · 주택의 유지와 보수 	

Ⅲ. 가정과 교육의 과제와 방향

지금까지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그 동안 교과 명칭의 변화, 필수와 선택 과목의 변화, 시간 배당의 지속적인

축소, 기술 과목과의 통합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남학생에게 이수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정과 교육은 그 역사성이 깊은 것에 비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며, 갈수록 그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환경, 인간성 상실, 가족붕괴, 과소비, 아동학대 등의 사회 문제는 모두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 등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학자들과 교사들은 학교교육에 선두에서 가정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반성적 발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배경과 현실에 처해있는 중국, 일본과 협력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3개국의 가정과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정리·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과목은 가정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의 독자적인 분야라는 것과 가정학의 연구 대상은 궁극적으로 '가정'이며,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교과목의 명칭이 '기술·가정', '가정일반', '가사' 등의 과목으로 각각 운영되는 것보다는 '가정' 또는 새로운 과목의 명칭을 연구하여 자리 매김 해야 한다.
- 2) 가정과 교육은 성 역할의 변화, 직업세계에서의 인식 변화 등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남녀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가정과의 시간배당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축소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교과목의 중요성과 실험·실습을 강조하는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배당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수준인 현재의 시간 배당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4) 지금까지 한국의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은 가정 교과만의 기본 철학을 배경으로 하되보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이념, 가정학의 동향을 반영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가정과 교육의 변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으면서 최근 가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과 가치를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확인하려는 연구 노력들이 활발

해 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은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가정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개발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 최근 가정과 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은 학생들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간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 학생 자신이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 더 나아가 가정,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실생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실천 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6) 가정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는 실험, 실습, 관찰 등 체험적, 실천적 경험을 중시하는 교과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실험·실습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7) 교육과정 편제를 결정하는 총론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일반 교육학자의 참여 비율을 조정하여 교과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교육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정교육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 8) 마지막으로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칭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 협의회' 등이 설립되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3개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외(1988). 교과교육원리. 갑을 출판사
교육부(1995).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1)-기술, 가정, 가사-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별책 10)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1)
- 김재복 외 (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김향아(1994).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제점과 그 역사적, 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수재(1986). 미래의 가정학 연구의 가능성. 대한가정학회지 24권
- 문수재·이기열(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의 진단과 개혁과제
- 윤인경 (1989). 가정과 교육의 발전적 탐색.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1)
- _____ 외 (1990). 가정과 교수·학습 목표 상세화. 중앙교육평가원
- _____ (1993). 창의력 개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방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 _____ (1997). 가정교과교육연구와 실제의 매체. 한국교과교육학회
- _____ 외 (1997). 제7차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
- _____ 외(1998). 중학교 가정과 수행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이인희·이옥임(1990).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 이춘식 외(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rown.M.M.(1980). What is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韓國家政科教育課程的現狀與科題

尹仁卿(韓國教員大學校 教授)

在韓國，1955年第一次出台國家制定的家政科教育課程。之後，韓國的家政科教育課程經歷了7次的修訂與改革過程。在此過程中，家政課程不斷地推陳出新，其科目名稱在變化，必修自選等選科性質也在變化，科時減縮，與技術科整合。而且，家政科變為男女生共修的科目，這就順應了社會發展的需要。

從韓國的教育課程來看，1年級到10年級是國民共通基本教育階段，11年級到12年級是自選教育階段。據此，家政科教育課程的按排為如下：小學(5~6學年)為實科，中學和高中(7~10學年)為“技術·家政”，高中(11~12學年)為“家庭科學”。將從2003年開始實施的家政科科時安排為如下：小學各2科時，7~12學年是各2·3·3·3科時，11~12學年為6個等次。

最近，青少年問題，教育環境，喪失人性，家庭破壞，消費過剩，虐待兒童，等社會問題都跟家庭生活有着密切的聯系，因此，在學校教育中，家政教育應受重視。但是，實際上並不是如此。作為教育主體的教師和父母都沒有認識到這個實情。因此，家政學者和教師有必要主動地去研究家政教育。尤其是，有必要跟中國，日本，等這些亞洲國家互相交流和合作的過程中去探索家政教育的安定發展。

下面把未來家政教育發展的方向建議如下：

1) “家政”科是以家政科為研究對象的家政學的獨立的研究領域。家政學的研究對象是“家庭”，它以家庭生活質量的提高為其研究目的。因此，在家政教育中，科目的名稱命名為“技術·家政”，“家政一般”，“家事”是不合理的。而應為“家政”

2) 家政教育應從重視性角色的變換，職業的認識變化的角度出發，從小學到高中分開為必修和選修科，由男女生共修。

3) 家政科科時在逐漸縮短。這是由于教育課程的縮短而引起的避免不了的現象。但是考慮家政科是實踐、實驗性科目應保障其最低的科時。最起碼必須維持現在的科時。

4) 向來，韓國的家政教育課程既以家政科為基本哲學背景和理念，又及時把國家教育課程的背景和理念，家政學的發展動態反映在教育課程中，即強調怎麼教。但是，經歷了反復的變革之後，最近，却重視怎樣去培養學生的什麼樣的能力與價值。因此，家政教育把教育目標放在怎樣去提高家庭生活的質量，怎樣去調和家庭生活和職業生活，怎樣去開發合理地解決和實踐家庭生活的價值觀。

5) 最近，家政教育把教育方向和目標設在去培養學生作為獨立的個人，作為家族的成員，作為社會成員來走人生道路的能力。因此，家政教育以人的生活為中心，又去涉及學生在成長過程中所遇到的問題，再去包括在家庭和社會生活中所遇到的問題。即去培養解決家庭生活中所遇到的所有的問題的綜合能力。

6) 家政科在教學方法和教學評價上，應採用實驗、實習、觀察等方式，應反映體驗性、實踐性經驗。為此，應必備起碼的實驗、實習設備。

7) 確定教育課程編制的時候，應提高一般教育學者的參與率。家庭教育學者應積極參與制定教育政策的有關教育的各種委員會。並在制定政策的過程中各盡所能，積極提出建設性的意見。

8) 韓，中，日三國應創立家庭教育課程協議會，為三國教育課程的良好發展做貢獻。

韓國の家政科の教育課程の現況と課題

尹 仁 卿(韓國教員大學校 教授)

韓國の家政科の教育課程は1946年の教授要目日期を経て、1954年に初めて國レベルで制定され、1955年の第1次教育課程の制定後、七つにわたって改訂された。その間、教科名の變化、必修と選擇科目の變化、時間數の縮小、技術科目との通合など、さまざまな變化を迎えて來た。また、單女共に履修する機會も與えられて發展して來た。韓國の教育課程は1-10學年の國民共通基本教育期間と、11-12學年の選擇中心の教育期間で構成され、家政科の教育課程は小學校(5-6學年)「實科」、中高校の(7-10學年)「技術・家政」、高校(11-12學年)の「家政科學」として實施されている。時間數は小學校で各2時間、7-10學年まで各2・3・3・3時間ずつ實施しており、11-12學年では6單位で2003年から始まる豫定である。最近の青少年、環境、人間性の喪失、家族崩壞、過消費、兒童虐待などの社會問題が、すべて家庭生活と關連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教員や父兄は學校教育における家政科教育の重要性を認識していない實情にある。したがって、家政學者と教員は家政教育の質的な發展のための論議をするべきである。特に韓國と似ている中國や日本と協力し、學校教育における家政科教育の安定と發展を工夫、實踐すべきである。

1) 「家政」科目は家政教科を研究對象にする家政學の獨自的な分野であり、家政學の研究對象は「家庭」で、家庭生活の質的な向上を目的にする。

2) 家政科教育は性役割の變化、職業世界の認識の變化など、小學校から高校まで男女共に履修すべき、必修科目と選擇科目で運營する。

3) 家政科の時間數が縮小しているが、教科の重要性と實驗・實習を強調する最低限の時間は必要である。

4) 今まで韓國の家政科の教育課程の改正は、家政教科だけの基本哲學を背景にするよりも、國の教育課程の改正の背景と理念、家政學の動きを反映して何をどう教えるかに氣を付けてきた。家政科の教育は家庭生活を運營し、質の高い生きる基本的な能力を育てること、家庭生活と職業生活の調和を生かすこと、家庭の問題を合理的に解決し、實踐する價值觀を開發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續けて努力すべきである。

5) 最近の家政科教育の方向と目標設定は、學生に個人として獨立して生きていく力を増やすのに集中している。

6) 家政教科の教授・學習の方法と評價は、實驗、實習、觀察などの體驗的、實踐的な經驗を重視する教科の特徴が反映されるべきであり、最低限の實驗・實習の施設が必要である。

7) 教育課程の編成を決定する總論の意思決定の過程に、一般教育者の參加比率を調節し、教科の専門者の參加の比率を高めさせるべきである。

8) 終わりに、韓・中・日の家庭教科の教育課程に對して續けて關心と研究を行い、「韓・中・日家庭教科の教育課程の協議會」のようなものが設立され、3カ國による協力を持続させることが必要である。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왕 석 순(전주대학교 교수)

I

학교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오랜 전통, 그리고 유교국가로서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한·중·일의 3개국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공동의 세미나가 한국의 가정과교육학회의 역량으로 개최됨을 새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됨을 매우 감사드리며, 토론의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II

윤인경 한국가정과교육학회장님의 글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시작된 1955년의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6차 교육과정(1992)까지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배당시간, 각 차기의 교육과정의 특징 및 강조점을 중심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소상하게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로 우리는 한국가정과교육과정의 변천을 그 특징과 더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97년 12월말 개정되어 현재 적용중인 제7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을 초, 중, 고등학교별로 내용영역과 시간배당, 특징 및 강조점 별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가정과교육의 현재의 주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세미나의 목적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가정과교육이, 나아가 한·중·일의 3개국이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총 8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의 글은 발표 글의 세번째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발표자인 윤교수님의 방향 제시에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III

(1)

“가정과목은 가정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의 독자적인 분야라는 것과(중략)…, 따라서 가정과교육에 있어서의 교과목의 명칭은(중략) …… ‘가정’ 또는 새로운 과목의 명칭을 연구하여…(중략)”

위 글에서 윤교수님께서 가정교과교육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가정교과교육이 학문으로서의 가정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과교육학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의 인정은 이미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에서도 수용되어 코드 분류에 사회과학-교육학-교과교육학-가정교과교육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학으로서의 가정교과교육학의 연구 역사는 일천함에서 비롯되어, 축적된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가정학이 아니라, “가정학을 학교 교과로서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가정교과교육학의 연구 실적은 아직은 초보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학을 학교교과로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둔 교과교육 연구”가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발전의 초석이 됨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과교육학의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이론적 연구와 함께, 교사집단의 교실 현장연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편, 발표자는 교과로서의 가정과목에 대한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의 가정과목은 실제로 지난 19세기말 여성 계몽의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이란 과목 명칭의 이미지는 “매우 전근대적인 이미지” 또는 “가사기술학” 등의 이미지로 폄하된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공수의 과목으로 자리매김 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과목의 명칭은 그 이미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명칭으로 개칭하여야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할 것인지를 문제를 고려하면, 역시 “가정”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최근의 모학문인 가정학의 변화를 고려할 때(학생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구

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려주는데 초점을 둔 접근) “개인과 가정 생활”이라는 다소 긴 과목명이 적절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과명의 명칭 개정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동향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가정학의 연구대상은 궁극적으로 '가정'이며,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중략) ... 최근 가정과 교육의 방향과 목표설정은 학생들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구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려주는데 초점을 둔 접근이(중략)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간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중략)...”

발표자의 글에서는 가정교과교육학의 모학문인 가정학의 연구대상을 궁극적으로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또 가정생활의 질적 생활에 목적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정학 연구의 접근 방법인 인간생태학적인 접근 방법에 따르면 가정학의 연구대상은 가정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러한 개인 및 가정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환경주체들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생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학의 연구대상은 물적, 정적 개념체로서의 “가정”이기 보다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변화와 동적개념체로서의 “개인 및 가정생활”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구성원,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려주는데 초점을 둔 접근이(중략)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간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라는 발표자의 가정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와도 좀더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과교육학은 '가정'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끈임없이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생활', 즉 “개인 및 가정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학의 연구대상은 “생활”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개인 및 가정생활”로 정의할 것과, 따라서 가정과교육은 개인이 가정생활뿐 아니라 직업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생활, 즉 삶 전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르치는 교과로서 정체화 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3)

“가정과 교육은 성역할의 변화, 직업세계에서의 인식변화 등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남녀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며(중략) 가정과 교육은(중략)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중략).....”

가정과교육의 남녀공수 교과로서의 당위성으로 발표자께서는 성역할의 변화라는 매우 중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가정과교육이 남녀공수 교과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가정이라는 안식처의 남녀 공동책임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개입으로서 가정과교육의 남녀공수라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요구에서 특히 최근의 교육개혁에서 강조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간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총체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남녀공수교과로서의 당위성을 아울러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가정과교육은 단순한 가사기술의 전달과 습득에 목표가 있기보다는, 쏟아지는 종 생활정보 중에서 자신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둡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노력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의 효과는 최근의 각국의 교육개혁에서 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교수하려는 창의성이라는 자질을 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은 남녀공수교과로서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정과의 조작적 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습내용들(의식주 등의 다양한 기본적인 실습내용들)과 실습을 위주로 한 교수방법들은 최근에 가드너(H.Gardner)와 같은 인지학습이론가 강조한 다양한 지능을 가진 학습자들의 학습 방법과 지능영역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남녀공수 교과로서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가정과교육은 남녀공수교과로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정과교육이 남녀공수교과로서 보다 공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그리고 교수 활동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보다 고려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교육은 거의 1세기동안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수되어 온 역사를 가지므로, 실제로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및 활동에서 남학생을 소외시키는 상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가치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법과 활동들을 검토하고, 또 양성평등적 가치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교육내용을 가정과교육과정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의 가정과학이 선택과목으로 존치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학을 남학교에서 좀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러한 양성평등적 교육내용의 추가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과 가치를 형성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확인하려는 연구노력들(중략)… ,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가정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개발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중략) …… ,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간의 생활을 중심에 두고, 학생 자신이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 더 나아가 가정,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실생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실천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중략)……”

발표자께서는 가정과교육의 변천과 현황에서 가정과교육의 역사에 따른 목표 변화에 대한 분석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상의 내용에서 21세기의 가정과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과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교육학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목표로 교육하는 가라는 목표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따라 내용(교육과정)이 설정되고,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활동이 계획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교육의 목표는 과거 가정과교육의 목표인 “가사기술의 전수와 이를 통한 생활의 과학화”라는 목표가 상당한 그림자를 남겨서, 최근까지도 이러한 목표가 가정과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목표가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발표자의 글에서 확인하듯이 가정교과의 목표가 더 이상 가사기술의 전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수업에서 기능을 다루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따라서 평가활동에서도 기능의 정확한 재현은 채점항목으로는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가중치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학교수업의 긴 시간을 점유해 온 정확한 기능의 재현을 위한 반복적 기능수업은, 왜 기능을 익혀야 하는지를, 또 이 기능을 익혀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내가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파악하는 생활문제의 파악이라는 동기유발(문제인식)의 시간으로 할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똑같은 기능을 의미없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 수업이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능수업에서 구상하기나 디자인 하기의 단계, 그리

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평가에서의 가중치 부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업과 평가활동을 통하여야만이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통합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 이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창의력은 정확한 기초기능의 배양 하에서 양성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현대 가정과 교육의 목표를 염두에 둔 새로운 수업과 평가활동을 창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치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 협의회’ 등이 설립되어(중략) ……”

발표자께서는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 ‘한·중·일 가정교과 교육과정 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교과로서의 가정교과의 운영은 한중일의 3국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초등단계에 필수교과로서 ‘가정’교과를 두고 있다면, 한국은 농공상 과목과 통합된 ‘실과’라는 교과로, 또 대만은 ‘미로’라는 노작교과의 형태로 존치하면서 가정교과라는 명칭을 초등단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과 대만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비록 기술교과의 변형 상태이나 필수교과로서의 위상으로 가정교과를 운영하고 있다면, 일본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선택교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서로 다른 이러한 가정교과의 운영상황은 교육과정 개정시에 교과와 필수와 선택교과 선정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 생활기술적 요소가 강한 일본의 가정과교육의 역사, 직업교육으로서의 요소가 차츰 강화되고 있는 대만의 가정과교육의 변화는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가정학 연구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가정과교육이 일본과 대만의 가정과교육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3개국의 가정과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공동의 세미나가 1회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본과 대만의 학회장님들의 한중일 가정과교육학회국제세미나 유치를 요청드립니다.

IV

21세기 가정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공동의 숙의를 한, 중, 일의 가정과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게 된 이번 기회는 가정과교육 발전의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합의가 발전되어 한, 중, 일 나아가 전세계의 가정과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발표자의 옥고에 대한 토론을 마칩니다.

〈要 約〉

關於「韓國家政科教育課程的現狀與課題」的討論

王 錫 旬(全州大學校 教授)

一、家政教育是與作為學問的家政學相區分的獨立的學問。本人主張“以教好，學好為重點的家政教育學科研究”應成為家政教育發展的基石。本人還建議為家政教育學科的理論研究和一線教師的實際研究應給予政策上的支持。

本人認為作為一門學科，家政課的名稱，以“家政”為比較確切。因為，它最能充分地體現家政課的內涵。但是，以目前家政學科內涵的變化發展(家政學科的內涵變化為把學生培養成富於獨立性的，具有家族成員和社會成員的使命感和意識的，能夠適應現代社會的個人。)為依據，本人敢提出把“家政學”命名為“個人與家庭生活”的設想。借此機會，我想對中國和日本的學者請教兩國在這一領域的研究動態。

二、作者在論文中，把家政學的研究對象定義為“家庭”。但是，從人類生態學(家政學的最新研究方法)的研究方法來分析，家政學的研究範圍不僅包括家庭，還包括個人與家庭，以及與個人·家庭相互作用的環境主體。據此，我認為家政學的研究範圍不應該限定為“家庭”這一靜態概念，而應定義為以與周圍環境相互作用為內涵的“個人與家庭生活”這一動態概念。即，我想主張家政學的研究對象應定義為強調生活概念的“個人與家庭生活”。我還認為家政學科教育應成為為提高人類總體生活質量，而培養人的綜合能力的學科。

三、家政學科男女生共同必修——這一變化是現代已婚女性要參與社會活動的意願在教育上的表現。從教育的本質來看，家政學科領域的這一變化與教育改革所引起的教育目標的變化(教育目標變化為培養具備創新能力和解決問題能力的，全面發展的個人。)相符合。因此，男女生共修家政科是時代的變化發展所決定的。

四、學科教育中，最重要的是正確地認識教育目標。教育課程的編制，教學活動和教育評價活動都以教育目標為依據。21世紀家政教育的教育目標是：“培養具有獨立生活能力和解決問題能力，以及創新能力的人”。在家庭課教學中，技能的培養是次要的，在評價中技能也不應該成為主要的批卷項目。應對陳舊單調的技能教學進行改革。即，不要讓學生無目的地去重復劃一的動作，而讓學生帶着目的，按照事先設計好的構想去制造富有創意性的作品。為此，在學習評價上應反映設計和構想的過程。

五、我非常贊同創立“韓，中，日三國家政教育課程協議會”的這一構想，并希望周期性地召開象今天這樣的，能夠促進國際交流的學術大會。

〈要 約〉

「韓國の家政科の教育課程の現況と課題」についての 討論

王 錫 旬(全州大學校 教授)

1. 家政科の教育は學問としての家政學と區別できる獨自的な學問の分野である。「家政學を學校の教科としてよく教える。またよく習う事を大事にする教科教育の研究」が家政科教育の發展の基礎になると思ひ、いろいろな理論的研究と教員たちの現場での研究の政策的な支援を要請する。家政教科の名稱は「家政」と言うのが一番であるが、最近の家政學の變化を考えると、(生徒に個人として、社會人としての生きる力を増やす教科)の意味から、「個人と家政生活」と言う教科名を提案する。教科名に關しての日本と中國の動きを質問する。

2. 發表の内容には家庭教育學の母學問である家政育の研究對象を「家政」だと定義している。しかし、最近の家政學の研究の接近方法である人間生態學的な接近方法によると、家政學の研究對象は家政だけでなく、個人と家政、そしていろいろな環境に範圍を広げている。すなわち、家政學の研究の對象は「生活」と言う概念を強調する「個人及び家政生活」と定義する。従って家政科教育は家政生活、職業生活を含む様々な個人の生活の質を高められる能力を増やす教科となるべきである。

3. 家政科教育の男女共同履修の現代の女性の社會進出とも關係がある。また、それは人間の總體的な全人的な發達に寄與する點で、妥當である。家政科教育の男女共同履修をきちんと行うために、教育課程、教授方法、教授活動などで兩性平等の價値を考慮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これを目指しての教育内容の追加、教授及び評價法の創案が必要である。

4. 教科教育の一番大事な事は教科教育の目標認識である。目標に従って教育課程が決まり、教授—學習及び評價の活動が計畫されるのである。21世紀の家政教科の目標は家庭生活で行われるすべての問題を自ら解決する能力、通合的な問題解決能力、創意力の増進にある。この目標によると、家政科の授業で技能を取り扱うのは付隨的なことであり、評價の活動においても、正確な技能の再現が評價の項目になっていけないである。

5. 假稱、「韓・中・日の家政教科の教育課程協議會」の構成にまことに同意する。このような共同セミナーが一回だけではなくて今後も系遺族されていくことを願ひながら、日本と臺灣の家政教育會長に國際セミナーの開催を要請する。